

조선족 농촌주거의 부엌공간의 형태와 취사 및 식사방식

- 중국 동북3성 각 지역의 조선족 농촌주거에 대한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

The Research on the Kitchen Spatial Structure in the Rural China Korean Ethnic Group and Their Cooking and Dietary Way

- Concentrating on the Countryside of China Korean Ethnic Group in the Three Provinces of NortheastChina -

김일학*
Jin, Ri-Xue

박용환**
Park, Yong-Hwan

Abstract

The house of the China Korean ethnic group in the countryside, kitche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ooms, which works for cooking, warming, and storage. Besides, it has some complementary functions such as washing and showering.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kitchen is divided into three types, 'jeongji', 'walkway' and 'independent' one. Those houses which are near Korea peninsula mainly belong to the 'jeongji' type; whereas those houses which are in the inland of Jilin, Heilongjiang and Liaoning Provinces mainly are 'walkway' and 'independent' types. The main constituents of the kitchen include pots and pans, water supply and sewerage, fuel and storage etc. The differences among these constituents lead to the geographic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cooking method and dietary culture, and finally the different kitchen spatial characters are manifested.

Keywords : China Korean ethnic group, house in the countryside, kitchen, type, dietary way, geographic character

주요어 : 조선족, 농촌주거, 부엌공간, 취사, 식사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중국 동북3성에는 200여만 명의 조선족¹⁾이 살고 있다. 각 지역의 조선족은 그들의 이주시기 및 경로에 따라 다양한 원적구성을 나타내고, 생활양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주거공간도 다양한 지역적 특징을 나타낸다.

1992년 한중수교 후 양국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함께 조선족전통주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울산대학교 건축연구소(1994)는 장재촌을 대상으로 마을의 배치와 주거형태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양승정(1997)은 용흥촌을 대상으로 취락구조 및 주거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고도임, 최형선, 박경남(1998)은 주생활측면에서 증개축을 중심으로 연변지역의 조선족 전통농가의 변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김준봉(2000)은 동북 3성의 조선족 전통민가의 평면형태의 분류와 특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 취사도구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로서 三橋俊雄, 張靑蘭, 趙岩(2003)의 조선족 취사도구에 관한 연구와 이은향(2006)의 조선족 식문

화의 변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두 논문은 조선족농촌주거의 부엌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었으나 부엌공간의 근대화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지금까지의 조선족농촌주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 개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다룬다 할지라도 단순한 평면형태의 분류에만 그치고 있어, 주생활과 공간의 대응측면에서 조선족농촌주거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조선족농촌주거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이는 각 지역의 부엌공간의 형태 및 취사방식과 식생활양식의 변천과정, 그리고 그 요인에 대한 연구가 기존연구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동북3성 각 지역의 조선족농촌주거의 부엌공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그들의 취사 및 식사방식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차이점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1)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을 가진 한인동포에 대한 호칭으로서 중국어로 Chao-Xian-Zu(朝鮮族)이라 한다. 시대별로 이들에 대한 호칭이 다르다. 이주 초기 청(淸)은 그들을 '朝鮮人'이라 칭하고, 대한제국시대(1897~1910년)에는 '韓人', 일제강점기에는 '在滿朝鮮人' 또는 '滿洲朝鮮人',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부터 '朝鮮族'으로 칭하고 중국공민(中國公民)으로서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되었다.

*정회원(주저자),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정회원(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공학박사

다. 또한 각 지역의 부역형태와 취사 및 식사방식의 변화 특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근대화과정에서 조선족 농촌주거의 부역공간의 변화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이주조선인 및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 지어진 재래식전통주거²⁾와 정부주도형개선사업³⁾으로 지어진 주택에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의욕에 의해 점차적으로 개선된 주택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08년 1월 16일-2월 3일, 2008년 9월 12일-9월 23일, 2009년 7월 3일-7월 17일 3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21개 마을의 212개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각 마을에서 부역형태가 다른 1-4개의 대표적인 평면들을 선택하여 본 논문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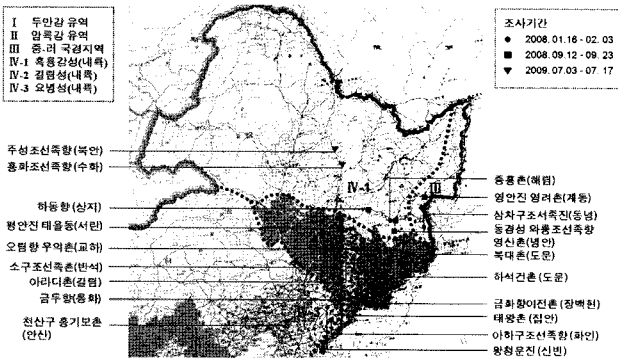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의 분포

II. 조사대상 개요

각 지역의 조사대상의 개요에 대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48개 분석대상을 지역적 분포와 부역 용어, 급배수, 취사도구, 식품-식기저장방식 및 위치, 곡물과 야채의 저장방식, 취사 및 난방 연료, 식사장소와 형태, 부역의 기타용도 등 범주로 나누어 내용을 기록하였다.

1. 조사대상의 지역 분류

<표 1>에서 정리한바와 같이 17개 마을의 48개 분석대상을 두만강, 압록강 유역, 중-러 국경지역,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류 근거는 각 지역의 조선족의 이주시기 및 그들의 원적구성형태이다.

두만강, 압록강유역은 청국의 '봉금지대(封禁地帶)'⁴⁾가

2) 한반도주거건축의 공간구성형태, 구조, 및 외부 형태를 가진 전통초가와 전통기외목조주택을 가리킨다.
 3) 1949-1980년대 초 인민공사화운동, 문화대혁명, 호도거리책임제 등 정책 하에 진행된 대대(大隊)를 단위로 한 주택건설운동.
 4) 1644년 청국은 조상의 발원지를 보호하는 명의로 백두산에 봉금정책을 실시함. 1881년 중-러국경문제가 심화되면서 關內漢族을 대상으로 '封禁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실변정책(移民實邊政策)을 실시함. 1885년에는 두만강 북안 길이 350km, 너비 20-25km 구역을 '한민전간지구(韓民專墾地區)'로 확정.

설정된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뿐만 아니라 많은 옥토가 폐기되어 있고, 또한 인적이 드물어 청국의 감시를 피하여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장소였다. 두만강과 압록강유역은 대부분 마을이 조선족만으로 구성되었고, 재래식전통주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조선족은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이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중-러 국경지역에는 계서시 영려촌과 동녕현 삼차구진 조선족향 두 마을이 포함된다. 마을 조선족의 이주경로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1860년 전후 극동지역의 이주조선인들이 중국 동녕현 경내에 들어서서 1867년 애훈⁵⁾지역에 정착하였고, 다른 한 부류는 1890년대 초 시베리아와 간도의 조선인이주민이 대규모로 북만에 이주하면서 동녕, 영안, 해림, 목룡 등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함경북도 출신의 이주민이었다.

내륙지역의 조선족마을은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마을들이다. 그들의 원적구성을 살펴보면 한반도 남부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중 경상도, 전라도에 원적을 두는 조선족이 가장 많으며 주로 길림성 중부와 흑룡강성 중부,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2. 부역 명칭

각 지역의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역 용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 명칭이 있다.

1) 부스개

위키낱말 사전에서는 '부스개'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경상도의 사투리로 '아궁이'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부역을 일컫는 연변말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지 조사와 <표 2>의 통계에 의하면 연변 지역의 하석건축, 북대촌 외에 압록강유역의 이전촌과 흑룡강성 중-러 국경지역의 영려촌, 흑룡강성 내륙지역의 영산촌 등 마을에서도 '부스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한반도 원적은 대부분 함경도 출신이었다. 따라서 '부스개'란 부역용어는 원래 함경도 지방에서 표현되는 언어이며, 현재 중국의 함경도 이주민이나 그들의 후예들로 구성된 마을에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지(淨地)

부역 또는 정주(鼎廚)의 방언으로서 주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북도 지역⁶⁾에서 사용된다. 중국 조선족지역에서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의 내륙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에서 '정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흑룡강성의 근로촌, 하동향, 길림성의 아라디촌, 소구조선족촌, 요녕성의 왕청문진 동강연촌, 흥기보조선족향

5) 애훈(愛暉)은 청국의 중요한 군사요지로서 현 흑하시 애후구(黑河市愛輝區)이남 35km지역을 포함한다.
 6) 네이버(www.naver.com)국어사전에서 '정지'에 대한 해석.

표 1. 각 지역 조사평면의 부엌개요

지역	조사번호	부엌 명칭	취사기구	급수	배수	연료		식품/식기저장		곡물/야채저장	식사		기타 기능
						취사	난방	방식	위치		방식	장소	
두만강, 압록강 유역	T-SJ01	K'	①②③④	③	②	①②③	①③	①②	①JR, ②K'	②③	①	JR	①②③
	T-SJ08	K'	①②③④	③	①	①②	①	③	K'	③	①	JR	②③
	T-SJ12	K'	①②③④	③	②	①②	①	①④	JR	③	①	JR	①②③④
	H-BD01	K'	①②	③	②	①②	①	①④	①JR, ④S	②③	①	JR, K'	①②③
	H-BD09	K'	①②③④	③	②	①②	①	①	JR	②③	①	JR	①②③
	H-BD15	K'	①②③④	③	①	①②	①	①	JR	②	①	JR	-
	H-BD20	K'	①②③④	③	②	①②	①	①	K'	②	①	JR, K'	①②③
	C-LT01	K'	①	②	②	①	①	①	K'	④	①	JR, K'	①②③
	C-LT02	K	①④	②	①	①	①	①	K	③	①	JR	①②③
C-LT04	K	①④	②	②	①	①	①	K	④	①	JR, K'	①②③	
중-러 국경 지역	J-YL01	K	①②③④	②	①	②③	③	①②	K	②	①	JR, K'	①③
	J-YL02	K'	①②③	②	①	②③	③	①	K'	②③	①	WR	①③
	J-YL05	K'	①②③④	②④	①	②③	③	①②	K'	④	①	JR, K'	①③
	J-YL06	K'	①③④	②	①	③	③	①②	K'	④	①	WR	①②③
	D-SC01	K'	①②③④	②	①②	①②	①	①	K'	④	①	WR	①②③
	D-SC02	K, K'	①②③④	②	①	①②	①	①	K	③	①	JR	③④
흑룡강성	S-QL02	K	①②③④	③	②	①②	①	①	K	①③⑤	①②	①DR, WR ②K	②③
	S-QL03	K	①③④	③	①	①②	①	③④	K	②③	①	WR, DR	①②③
	B-HX01	K	①③	①	②	①	①	①②④	①②K, ④DR	①	①	WR, DR	①③
	B-HX02	K, K"	①②③④	①	②	①②	①	①	K"	③	①	WR	①②③
	N-YS01	K'	①②③	②	①	①	①	①	K'	③	①	JR	①③
	N-YS02	K'	①②③④	②	①②	①②	①	①④	①K', ④JR	③	①	JR	①②③
	H-ZX01	K'	①②③④	②	②	①②	①	①④	K'	③	①	JR	①②③
	H-ZX02	K	①②③④	②	①	①②	①	①	K	①③	①	WR	①③
	H-ZX03	K'	①②④	②	②	①②	①	①	K'	③	①	WR	①②③④
	S-HD01	K	①③④	③	①②	①②	①	③	K	①③	①	WR	-
	S-HD03	K	①②③④	③	①②	①②	①	③④	③K, ④V	①	①	WR	④
	S-HD04	K	①③④	③	①②	①②	①	①②③	①③K, ②S	③	①②	①WR, ②K	③
	S-TY02	K	①②④	③	②	①②	①	①③	K	③	①	K	①②③
	S-BJ02	K	①②④	③	①	①②	①	①	K	③	①	WR	-
내륙 지역	J-YY01	K"	①②③④	②	①	①②③	③	①④	①K", ④L	③	①	L	-
	J-YY02	K"	①②③④	③	②	①②	①	③	K"	③	①	KR, DR	①②③
	J-AL01	K	①③	①	②	①	①	①	K	③	①	JR	①②③
	J-AL02	K	①②③④	②	①	①②	①	③④	③K, ④WR	④	①	WR	-
	P-SG02	K	③④⑤	③	①	-	③	③④	K	②	①	K	③
	T-JD01	K	①②④	③	①	①②	①	①	K	⑤	①	KR	①②③
	T-JD02	K"	①②③④	③	①②	①②	①	①	①K", ④DS	⑤	①②	①KR, ②K"	①②③
	J-TW01	K"	①③④⑥	③	②	①②	①	①	K"	④	①	KR	①②③
	H-YH01	K"	①③④	①②	①	①②	①	③④	③K", ④L	③	①②	①KR, ②K"	③
	H-YH02	K"	①④⑥	②	①②	①②	①	①	K"	③	①	KR	①②③
	H-YH03	K"	①③④⑥	①②	①	①②	①	①③④	①S, ③④K"	③	①②	①KR, ②WR	①②③
	S-WQ01	K	①④⑥	②	①	①②	①	①④	①K, ④WR	③	①	WR	①②③
	X-DJ01	K"	③④⑥	②	①	①②	①	①	K"	④	①②	①DS, ②KR	①②③
	X-DJ03	K	①③④⑥	②	①	①②	①	①④	①K, ④WR	④	①	KR, WR	①②③
X-DJ05	K	①④	②	①	①②	①	①	K	④	①	WR	①②③	
A-HQ01	K	①③④⑥	③	①	①②	①	①④	①K, ④DR	③	①②	①WR, ②K	①②③	
A-HQ02	K	①③④	③④	①	①②	①	③④	③K, ④DR	③	①	WR	①②③	
A-HQ03	K	①③④	③	①	①②	①	③④	K	④	①	WR	-	

표 1. 계속

지역	조사번호	부역 명칭	취사기구	급수	배수	연료		식품/식기저장		곡물/야채저장	식사		기타 기능
						취사	난방	방식	위치		방식	장소	
기호	분류	K정지(부역) K'부스캐 K"추팡	①전통솥 ②평가마 ③전기밥솥 ④가스레인지 +프라이팬 ⑤전자레인지 ⑥한죽솥	①수동 펌프 ②전기 모터 펌프 ③수도 ④정수기	①배수구 ②물통	①장작/뿔짚 ②가스 ③석탄	①전통찬장 ②선반 ③싱크대+찬장 ④냉장고	①실내움 ②바깥움 ③실내 창고 ④실외 창고 ⑤ R(방)	①좌식 ②입식	①세탁 ②목욕 ③세면 ④옷걸이			
											마을	T-SJ(하석건촌), H-BD(북대촌), C-LT(이전촌), J-YL(영려촌), SC(삼차구조선죽향), S-QL(근로촌), B-HX(홍성촌), N-YS(영산촌), H-ZX(중흥촌), S-HD(하동향 114계), S-TY(태을동), S-BJ(보가튼), J-YY(우의촌), J-AL01(아라디촌), P-SG(소구조선촌), T-JD(급두향), J-TW(태왕촌), H-YH(아하구조선죽향), S-WQ(왕청문진), X-DJ(동강연촌), A-HQ(홍기보촌)	
											실명	WR(온돌방), KR(강), JR/K'R(정지방), DR(띠강), L(거실), K(부역, 정지), K'(부스캐), K"(추팡), BD(바당), DS(띠실), T(화장실), CS(외양간), C(복도), V(현관), SW(세면실), S(창고)	

이 있는데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마을들로서 한반도 남부출신이주민의 2, 3세대로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부역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3) 주방, 추팡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내륙지역의 일부 조선족들은 한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부역을 주방 또는 추팡이라 부른다. 주방은 부역의 한자 ‘廚房’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고, 추팡은 부역의 중국어발음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내륙지역의 조선족들은 이주 초기 대부분 한족들의 주거에서 셋집으로 살았고, 타민족과의 언어소통이 서툴렀으며 많은 용어를 중국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족 문화권에서 오래 동안 생활하다보니 많은 용어들이 일상생활의 기본용어로 정착되었다.

III. 부역의 공간구성형태 분석

1. 기본구성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부역의 기본구성요소로서 취사 공간, 물 사용 공간, 저장 공간이 포함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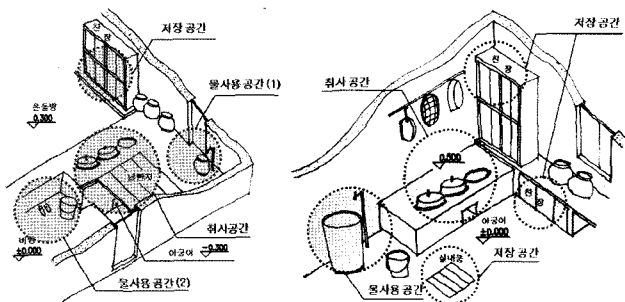


그림 2. 부역공간의 기본구성형태 (a: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부역형태 b: 내륙지역의 부역형태)

1) 취사공간

취사공간은 부뚜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부뚜막은 주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공간이다. 보통 2~3개의 솔이 걸려 있으며, 솔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부뚜막의 재료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이주 초기에는 대

부분 흙으로 만들었고, 그 후 50년대에 들어서서 석조 또는 벽돌조로 된 부뚜막이 구축되었고, 70년대 말에 이르러 표면을 시멘트 또는 타일로 마감하였다.

아궁이는 보통 부뚜막의 중심에 위치한다. 내륙지역의 부역에서 아궁이의 밑부분은 바닥면과 일치하며 온돌에 비해 약 40cm 좌우 낮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중-러 국경지역에 분포된 조선족 농촌주거는 대부분 정지방과 통합된 부역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아궁이는 입구의 바닥면보다 30~40cm 더 내려앉아 부뚜막보다 약 60cm 낮게 설치하였다. 평소에 아궁이의 위에 널빤지를 덮어 방의 유효면적을 증가하는 동시에 먼지가 방안에 날리지 않도록 한다.

2) 물 사용공간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물 사용공간은 급수, 배수, 세면 등 시설과 행위공간을 포함한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부역에서 급수시설은 보통 부역의 후면에 배치되어 있고, 바닥높이를 온돌방과 같은 레벨로 하여 좌식생활에 편리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배수시설은 입구 쪽에 배수구를 설치하거나 바닥에 물통을 두어 오수를 담아 버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세면행위는 대야에 물을 담아 부뚜막에서 하거나 입구 쪽 배수구의 기단 위에서 한다. 내륙지역의 부역에서 급수시설은 보통 부뚜막 옆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급수시설과 인접하여 세면대이나 오물통을 둔다. 일부 지역에서는 싱크대와 함께 물 사용 공간을 부역 북쪽에 일괄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급수시설의 변화는 대체로 4개 단계를 거쳤다. 이주 초기에는 강물 또는 마을의 공동우물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마당 또는 실내 부역바닥에 우물을 파서 수동펌프를 사용했고, 세 번째 단계는 수동펌프를 전기모터펌프로 대체하여 사용하였고, 네 번째 단계는 수돗물의 보급단계이었다. 현재 대부분 마을은 전기모터펌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를 인접한 일부 지역에서만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3) 저장 공간

부역공간에서 저장방식은 가구와 공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식품이나 식기는 찬장, 선반, 냉장고 등 가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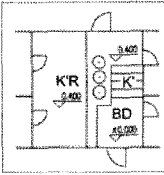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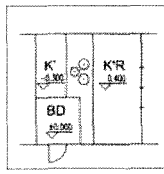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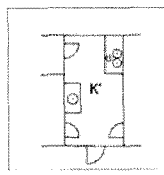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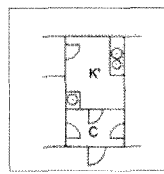
저장하고, 야채와 곡물은 ‘움’의 방식으로 저장한다.

찬장은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저장 가구이다. 찬장의 형태 및 배치 위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주택에서는 찬장을 정지방의 북쪽에 배치한다. 찬장 밑에 10 cm 좌우 높이의 기단을 설치하여 찬장이 온돌의 뜨거운 열이나 물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영려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찬장을 부엌의 북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찬장의 밑 부분을 부뚜막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여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한다. 일부 재래식 전통주택에서는 부엌 북쪽에 선반을 설치하여 식기를 두기도 한다. 내륙지역의 조선족 농촌주거에서는 찬장을 부엌에 배치하되 그 위치가 다양하며 보통 부엌 북쪽에 많이 배치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싱크대가 설치된 조립식 찬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냉장고는 90년대 후반부터 조선족 농촌주택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배치 위치는 각 지역의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다.

부엌에서 저장용 공간은 주로 실내 ‘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공간형태는 대부분 흑룡강성 중부,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움의 위치는 아궁이와 멀리 하여 항온(恒溫)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입구는 보통 50×50 cm의 널빤지로 구성되어 바닥면과 같은 레벨을 하고 있다.

표 2. 부엌 공간 유형

부엌유형	부엌 평면 형태	사 진
정지통합형 (J)	(J1)	 (T-SJ12 부엌)
	(J2)	 (C-LT02 부엌)
통로형 (C)	 (S-QL02 부엌)	
독립형 (H)	 (S-HD04 부엌)	

2. 부엌 공간의 유형

1) 유형 분류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부엌을 크게 정지통합형, 통로형, 독립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표 2>.

(1) 정지통합형(J형)

부엌이 정지방과 인접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된 부엌형태이다. 정지통합형 부엌은 지역에 따라 공간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중 J1형은 아궁이 위에 널빤지를 깔아 부엌의 레벨을 온돌방과 같게 한 형태이고, J2형은 부엌바닥공간을 그대로 드러낸 형태이다.

(2) 통로형(C형)

이는 방으로 진입하는 일종 통로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부엌형태이다. 평면에서 부엌공간의 한쪽 또는 양쪽에 부뚜막을 설치하고 중간을 통로로 사용한다. 이러한 부엌 형태는 한쪽이나 만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3) 독립형(H형)

부엌이 독립된 공간을 구성하여 기능적으로 취사 및 식사공간으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부엌 주변에는 창고, 보일러실 등 부속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2) 각 유형의 지역적 분포

J형, C형, H형 부엌의 지역분포 및 비율 관계를 분석하면 <표 3>, <그림 3>과 같다.

J1형의 사례는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서만 나타났다. J2타입은 주로 두만강, 압록강 유역, 그리고 중-러 국경지역에서 나타나며, 흑룡강성의 내륙 지역에 소수 사례가 있었다. C, H형은 대부분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의 내

륙지역에서 나타나며, 중-러 국경지역과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 1, 2개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 지역별로 각 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중-러 국경지역에서는 J2형의 부엌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내륙 지역의 흑룡강성과 길림성은 C형과 H형이 같은 비율로 우세를 차지하며, 요녕성은 H형이 70.0%, C형이 30.0%로서 H형이 훨씬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한반도에서 가까운 지역은 정지통합형 부엌 형태를 갖춘 사례가 많고, 내륙지역은 통로형, 독립형의 부엌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각 지역 부엌요소에 관한 분석

1) 취사도구

조선족 농촌주택에서 사용되는 취사도구에 대해 정리하면 조선족 전통솥, 평가마, 전기밥솥, 프라이팬, 전자레인지, 한쪽 솥 등이 있다. 그 중 전통솥은 어느 지역이든 모두 주요 취사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평가마는 조선족 농촌주거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한족솥의 기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솥의 모양은 평판형태로 깊이가 5 cm 좌우이며, 주로 떡을 굽거나 음식을 데우는데 사용한다. 또한 추운 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때면 전통솥보다 연전달이 빠르므로 화로의 역할도 한다.

프라이팬은 80년대 후반 액화가스와 함께 가스레인지가 보급된 후부터 사용되었다. 프라이팬은 주로 볶음요리를 할 때 사용한다.

표 3. 부엌 유형 지역분포

유형	두만강, 압록강 유역	중-러 국경 지역	내륙 지역			대표 평면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J1형	T-SJ01 T-SJ12 H-BD01					T-SJ01
J2형	H-BD09 H-BD15 H-BD20 C-LT01 C-LT02 C-LT04	J-YL01 J-YL05 D-SC02	N-YS02 H-ZX01			J-YL05
C형		D-SC01 J-YL06	S-QL02 S-QL03 B-HX01 B-HX02 H-ZX03	S-TY02 J-AL01 P-SG02 T-JD02 J-TW0	S-WQ01 X-DJ01 X-DJ03	S-WQ01
H형	T-SJ08	J-YL02	N-YS01 H-ZX02 S-HD01 S-HD03 S-HD04	J-YY01 J-YY02 S-BJ02 J-AL01 T-JD02	H-YH01 H-YH02 H-YH03 X-DJ05 A-HQ01 A-HQ02 A-HQ03	S-HD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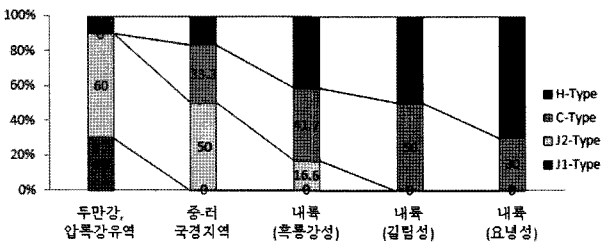


그림 3. 부엌 유형의 지역분포 비율관계

전기밥솥은 1992년 한-중수교이후 조선족들의 한국방문이 가능해지면서 최초로 한국산 전기밥솥을 중국 내로 가져와 사용하였다. 전기밥솥의 사용에서 조선족은 한국들에 비해 7, 8년 앞섰으며,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을에 주호 당 1개씩 보유하고 있다.

<그림 4>는 <표 2>를 바탕으로 5개 지역의 취사도구의 사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에서 표시된 수치는 각 취사도구를 사용하는 사례수를 지역의 총 조사 사례수로 나누어 얻은 퍼센트이다. 5개 지역에서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중-러 국경지역, 그리고 흑룡강성의 내륙지역은 전통솥을 사용하는 사례가 100%를 차지하고, 길림성과 요녕성의 내륙지역은 90.0%를 차지하였다.

평가마의 사용은 내륙지역에 비해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사례가 많았다. 원인은 내륙지역에서는 평가마 대신 한족 솥을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족솥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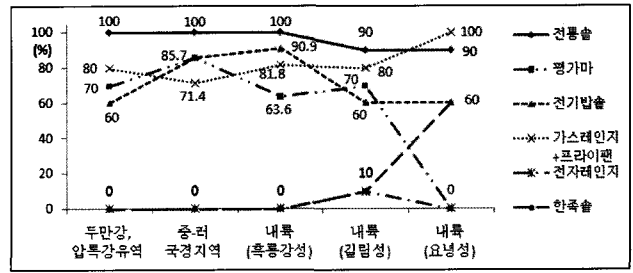


그림 4. 취사기구의 사용

하는 사례는 주로 내륙지역에 분포되었는데 그 중 요녕성에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기밥솥의 사용율은 각 지역이 모두 60.0% 이상으로서 농촌지역에 이미 보편화되고 있으며, 흑룡강성 내륙지역과 중-러 국경지역에서 사용율이 가장 높았다.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은 전기밥솥보다 일찍 보급되어 각 지역에서 70.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녕성 내륙지역의 경우 사용율이 100%로서 전통솥의 사용율보다 높았다.

전자레인지의 사용은 길림성 내륙지역에만 1개 사례로 나타나는데 현대식 시스템으로 개조한 부엌사례였다.

이상 각 지역의 취사도구에 대한 분석에서 전통솥의 사용율은 과거와 다름없이 기타 취사도구의 사용율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서는 기타 지역보다 평가마의 사용율이 높고, 요녕성과 길림성 내륙지역은 한족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러 국경지역과 흑룡강성의 내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기밥솥의 사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급배수

현재 조선족 농촌주택에서 급수시설은 수동펌프, 전기모터펌프, 수도물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배수방식으로는 실내 배수구 설치와 물통으로 오물을 담아 마당, 텃밭 또는 실외 하수구로 버리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림 5>는 각 지역의 급, 배수 방식에 대한 분석이다. 급수방식에서 주로 전기모터펌프와 수도물을 사용하는데, 그 중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길림성 내륙지역은 수도물의 사용율이 각각 70.0%로써 가장 높고, 중-러 국경지역과 요녕성 내륙지역은 전기모터펌프의 사용율이 가장 높으며 각각 85.7%와 70.0%를 차지하였다. 흑룡강성 내륙지역은 두 방식의 사용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사사례 중 수동펌프의 사용은 내륙지역에서만 나타났으며 그 비율이 10-20%로써 매우 낮았다.

정수기는 최근에 와서 농촌주택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분석대상 중 중-러 국경지역과 요녕성 지역에서 각각 한 개의 사례가 나타났다.

배수방식에서 두만강, 압록강 유역은 물통으로 오물을 버리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내륙지역은 배수구의 설치 및 사용비율이 높았다.

3) 연료

각 지역의 연료는 장작과 볏짚을 기본으로 하여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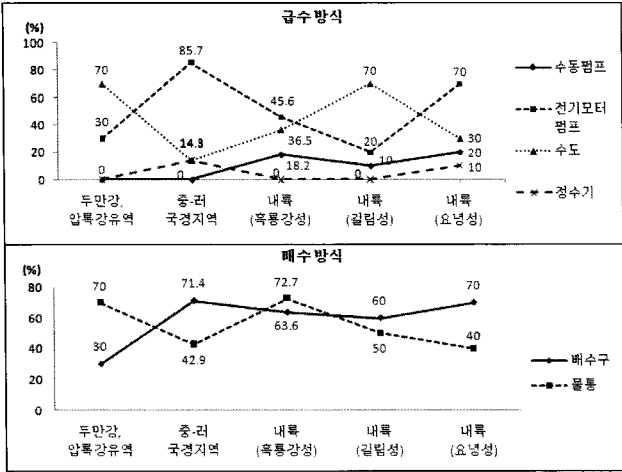


그림 5. 급배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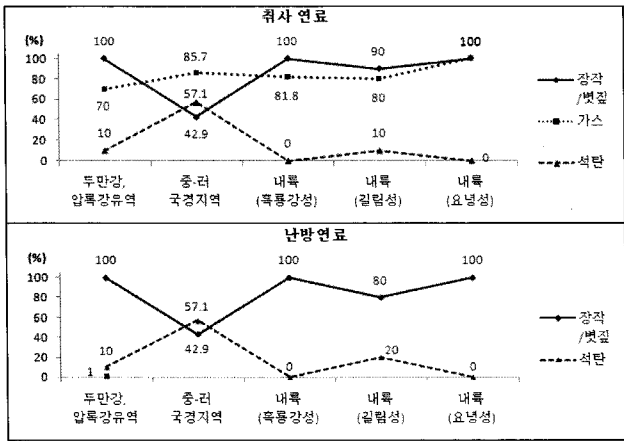


그림 6. 연료의 사용

가스 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취사와 난방의 동시성으로 같은 연료를 사용했지만 현재 취사기구 및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능에 따른 연료사용형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그림 6>과 같이 연료를 취사연료와 난방연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취사연료의 사용에서 각 지역은 주로 장작, 벚짚과 프로판액화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탄연료는 중-러 국경지역의 영려촌을 제외하고 그 사용율이 매우 낮았다. 원인은 기타 연료에 비해 석탄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난방 연료는 대부분 장작과 벚짚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러 국경 지역과 길림성 내륙지역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소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들 주변에는 석탄 공장이 들어서 있는가 하면, 부엌에 석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4) 저장 공간 및 가구

조선족 농촌주택에서 식품, 식기는 주로 가구에 저장하고, 곡물과 야채는 창고나 움 등 공간에 저장한다. 저장 가구로서 전통 찬장, 선반, 싱크대와 찬장의 조립식가구, 냉장고 등이 있고, 저장용 공간으로는 실내, 외 창고와 움, 그리고 빈 방 등 형태가 존재하였다.

조사사례 중 대부분 지역은 전통찬장을 주요 저장가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선반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중-러 국경지역, 그리고 흑룡강성의 내륙지역에서 나타나고 대부분 J형의 부엌형태를 가진 사례들이었다. 내륙지역은 기타 두 지역에 비해 조립식 찬장과 냉장고의 사용율이 높았다.

<그림 7>은 저장가구의 배치 위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찬장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면 중-러 국경지역과 내륙지역에서는 찬장을 부엌에 배치하고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서는 찬장을 정지방에 배치하고 있었다. 냉장고의 배치도 지역에 따라 그 위치가 달랐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서는 냉장고를 정지방 또는 창고에 배치하고, 흑룡강성 내륙지역은 띠캉⁷⁾(DR), 정지방, 현관, 창고 등 공간으로 다양하게 배치하고 있었으며, 길림성과 요녕성 내륙지역은 주로 거실, 온돌방, 띠실(DS)⁸⁾ 등 공간에 배치하였다. 위의 분석에서 찬장과 냉장고는 취사 및 식사의 보조 가구로서 반드시 부엌 공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공간을 접하여 배치하는 사례도 상당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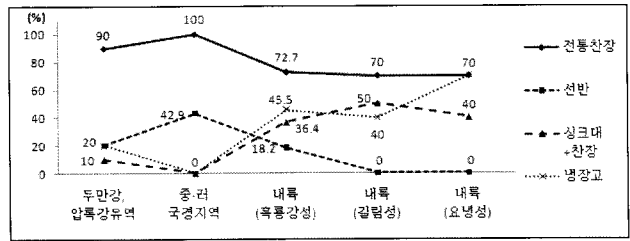


그림 7. 저장 가구의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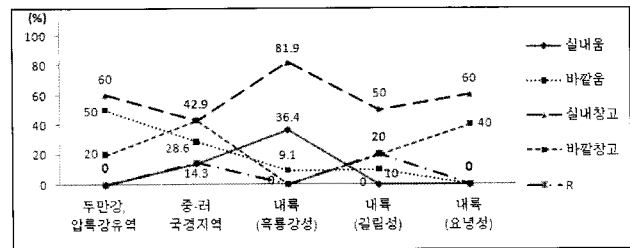


그림 8. 저장 공간의 사용

<그림 8>은 저장 공간의 사용 현황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실내창고를 주요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내 움이 설치된 사례는 주로 흑룡강성의 내륙지역과 중-러 국경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 집단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택의 부엌공간은 개척초기 일본인 거주를 위한 주택개선안 및 주변지역의 한족, 만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

7) 원래의 바닥공간을 높여 온돌방보다 약 15-20 cm 낮게 한 마루공간이다. 일부 추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온돌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온돌이 설치될 경우 따로 아궁이를 설치한다. 조선족들은 '地炕'을 중국어 발음 그대로 '띠캉'이라 한다.

8) 내륙지역에서 바닥 공간에 대한 호칭이다

다. 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부엌 내에 욕을 설치하는 것인데 만주국시기 집단부락의 ‘滿洲開拓民家屋設計案’에서 토간(土間)⁹⁾에 욕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바깥 욕은 주로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중-러 국경지역의 조선족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바깥창고는 주로 농기구나 빨감 저장으로 사용되며 야채나 곡물 저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5) 식사 방식 및 장소

<그림 9>에서 각 지역에서 좌식의 식사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식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엌공간이 독립되어 입식 식사기능을 추가하여 DK화로 나아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수가 적어지면서 혼자서 부뚜막이나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는 주로 요녕성 내륙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식사 장소에 대한 분석으로서 <그림 10>을 보면 두만강, 압록강 유역에서는 주로 정지방에서 식사를 진행하고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의 내륙지역은 안방에서 식사를 진행한다. 부엌에서 식사하는 방식은 다섯 개 지역에서 모두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 중 두만강 압록강 유역은 위에서 분석한 입식 식사방식의 두 번째 경우로 나타나고 내륙지역에서는 첫 번째 경우로 나타나고 있었다. 떠실(DS)이나 떠강(DR)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주로 중-러 국경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나타나며, 거실 식사형은 길림성과 요녕성의 내륙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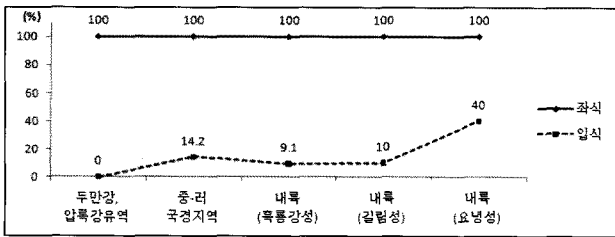


그림 9. 식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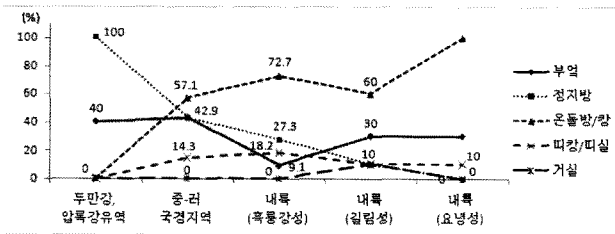


그림 10. 식사 장소

6) 부엌의 기타 기능

조선족 주택에서 부엌은 일종의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다. 즉 취사, 세면, 목욕, 세탁 등 행위가 모두 하나의 부엌공간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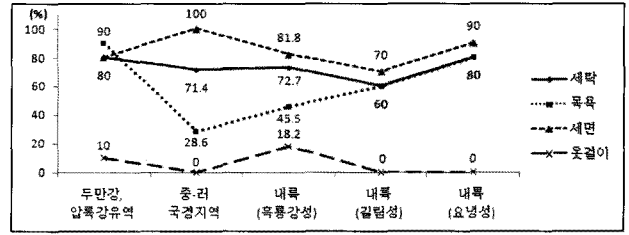


그림 11. 부엌의 기타 기능

각 지역의 부엌공간의 다용도성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11>와 같다. 부엌기능 외에 주로 세탁과 세면, 목욕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중-러 국경지역과 흑룡강성의 내륙지역에서는 목욕 기능이 약간 떨어지고 있었다. 원인은 여름에는 주로 강변에서 목욕을 하고 겨울에는 향, 또는 진¹⁰⁾의 가까운 지역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엌을 옷걸이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작업복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용한다.

IV. 부엌의 근대화와 취사 및 식생활의 변용

1. 취사방식의 변화

1) 연료의 변화

조선족농촌주거의 근대화과정은 연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장작나무와 벚짚의 사용으로부터 원래의 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석탄, 프로판액화가스 등 새로운 연료를 추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석탄의 사용으로 인해 난방효과가 훨씬 향상되었지만, 단가가 높아 최근에 이르러 다시 장작나무와 벚짚을 기본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프로판액화가스는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지역에 보급되어 취사 연료로 사용하였다. 액화가스가 보급되면서 술의 사용빈도가 감소되었고, 식구가 적은 주호는 가스레인지와 냄비로서 밥을 짓기도 하였다.

연료의 변화는 결국 취사도구의 변화와 함께 식사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2) 취사도구의 변화

액화가스가 나타나기 전 조선족가옥에서 모든 취사행위는 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장소는 계절에 따라 실내와 실외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외부엌의 경우 아궁이, 솥, 굴뚝의 일체형으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며 주로 무더운 여름철과 기타 큰 행사를 치를 때 사용하였다.

사회주의건설초기(1949-1980년대 초)에는 인민공사화운동, 문화대혁명 등 다양한 운동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한족문화를 중심으로 타민족과의 문화접변현상이 빈번했으며, 각 지역의 조선족주거문화가 점차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두만강과 압록강유역의 조선족농촌주거에서는 평가마가 유행하였다. 1970년대 연길시 솥 공장에

9) 봉당 또는 흙으로 된 바닥공간으로서 부엌을 의미한다.

10)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省), 시(市), 현(縣), 진(鎮), 향(鄉)으로 편제되어, 진과 향은 현에 소속된다.

서는 평가마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액화가스가 농촌지역에 보급되면서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의 사용빈도가 높아졌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전기밥솥이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보편화되면서 재래식 전통 솥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여름에는 대부분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요리는 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 재래식 솥은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며, 밥을 짓는 기능 외에 물을 끓이는 기능으로 사용되고, 평판 가마는 주로 밥을 덥히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농촌지역은 식구가 줄어 작은 밥솥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손님이 있을 경우 식사 양이 급증하여 큰 솥으로 밥을 지었다. 전기밥솥과 가스레인지의 도입으로 인해 취사의 편리를 가져오긴 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기비용, 가스비용 등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겨울철에는 여전히 전통 솥을 사용하며, 취사와 난방을 겸용하고 있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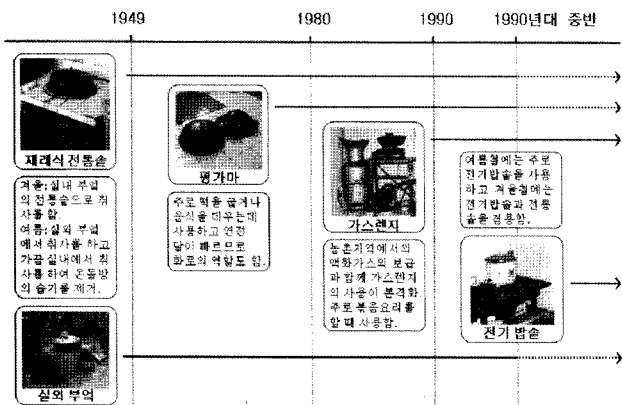


그림 12. 취사도구의 변화

3) 취사방식의 지속 변화

취사방식의 변화는 결국 연료, 및 조리기구의 변화에 의해 일어난다. 프로판액화가스의 보급 및 가스레인지, 프라이팬의 사용은 재래식 부엌공간에서 조리기구의 배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요구한다. J1형의 부엌에서는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을 부뚜막 안쪽의 바닥 공간에 배치하여 재래식 취사방식 그대로 좌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J2형의 경우 아궁이 쪽의 바닥공간을 개방하여 주변으로 약 60cm 높이의 조리대를 설치하여 가스레인지, 프라이팬을 설치하면서 과거 좌식형태의 취사방식이 바닥에서 서서 조리하는 입식으로 변화하였다. C, H형의 경우 가스레인지의 배치방식은 J2형과 비슷하며 과거의 입식조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취사방식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계절에 의한 취사장소 및 가구의 변화이다. 과거 여름에는 집안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1주일에 두 번씩 불을 때고, 그 때만 실내부엌을 사용하며, 기타 경우는 주로 바깥부엌을 사용하였다. 겨울철에는 난방의 필요성으로 인해 매일 불을 때고 취사가구로서 솥을 사용하였다. 전기밥솥이 도입되

면서부터 여름철에는 주로 전기밥솥과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여전히 솥을 주요취사가구로 사용하였다. 급한 상황에서만 전기밥솥을 사용하였다.

2. 식사방식의 지속, 변화

과거 조선족의 식사방식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남녀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 가장과 남성은 따로 밥상을 차려야 했고 여성들은 정지방이나 주방에서 식사를 하였다. 특히 두만강 압록강유역의 J형의 전통주택에서는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었다<그림 13>. 남쪽에 있는 옷방과 굽방은 남성공간으로서 그들의 식사도 침실에서 따로 진행되며, 후면에 있는 안방, 고방과 정지방, 부엌 등 공간은 여성전용공간으로서 식사는 주로 정지방에서 하고 주부들은 가끔 부엌에서 식사를 할 때도 있었다. 가장과 남자 주인에게 식사를 들일 때는 미리 부엌공간에서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였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공간의 위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 수가 줄어들어 따라 모든 방들을 털어 하나의 큰 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따라서 가족들이 정지방에 모여앉아 식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찬장, 냉장고, 전기밥솥 등 도구들이 정지방에 설치되어 식사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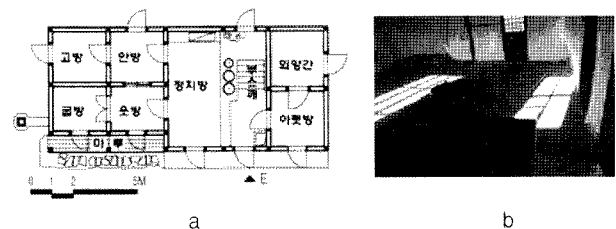


그림 13. “田”자형 전통 주택(장재촌) (a: 평면, b: 부엌 사진)

C형의 주택에서 부엌은 방으로 진입하는 통로의 역할을 겸하고 부엌의 한쪽 또는 양쪽으로 온돌방을 배치한다. 과거에는 온돌방이 미닫이문에 의해 옷방과 아랫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옷방은 주로 가장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식사를 따로 차려드렸고, 아랫방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취침, 식사하는 공간이었다. 밥상을 차릴 때는 먼저 아랫방에서 준비하여 옷방으로 들였다. 전통예의의 소실과 함께 많은 지역에서 원래 이열형구조의 온돌방을 하나의 통간으로 만들어 일렬형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남녀노소가 같이 식사하였다. 찬장은 여전히 부엌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밥상을 차리는 순서는 먼저 방에 식탁을 펴고 다음 부엌에서 식기와 음식을 들여오는 순서였다. 냉장고와 솥 등 가전제품은 온돌방에 배치하여 식사에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주요기능을 하였다.

H형은 독립형 부엌공간에 입식 식탁을 설치하여 DK화된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식사행위는 여전히 안방에서 좌식의 형태를 갖추고 부엌에 설치한 식탁은 가

표 4. 타입별 식생활양식의 변화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이후
J형		
C형		
H형		
식사 형태	a: 家長 및 남자 식사 공간 b: 여성, 아이 식사 공간 c: 주부 식사 공간	b': 가족 전체 식사 c: 가족 수 적을 때의 식사 d: 여름철 식사(띠캉)
기호	→ (음식 동선), - - - (식기 동선), → (음식+식기 동선) 전기밥솥, 냉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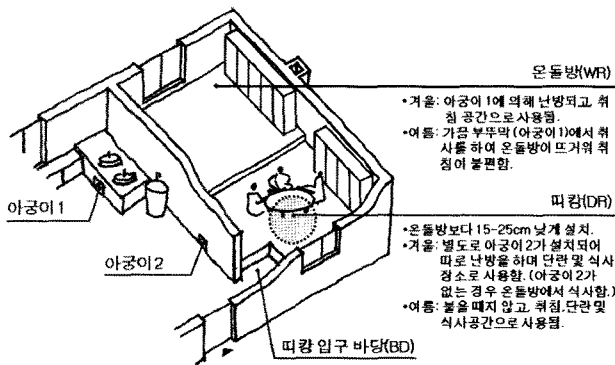


그림 14. 띠캉(DR) 공간구조

족 수가 적거나 간단히 식사를 할 때 이용하며 평소에는 부엌가사노동의 작업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냉장고, 전기 밥솥 등 가구들은 주로 안방에 배치되어 있었다<표 4>.

그리고 식사장소에 있어서 띠캉이라는 공간이 특징적인데 이는 조선족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한족과 만족 주택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다. 그러나 공간구성에서 레벨이 온돌방보다 낮고 널빤지나 비닐 장판을 깔아 좌식 생활을 하며 또한 일부 추운 지역에서는 온돌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한족이나 만족의 바닥 공간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두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띠캉 공간은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사례가 존재하며 특히 C, H형에서 사례가 비교적 많은데 이는 식사방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여름철에 방에 불을 땀을 때 식사, 단란 등 행위는 대부분 띠캉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그림 14>.

3. 부엌공간의 지속과 변형

1) 취사공간의 확장

조선족 농촌주택에서 부엌공간의 근대화는 새로운 연료 및 취사도구의 도입에 의해 공간의 기능적 변화 취사행위의 변화 등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전기밥솥이 조선족 농촌주거에 도입되면서 취사공간의 범위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현재 조선족농촌주거에서 전기밥솥의 위치는 부엌에 비해 안방 또는 정지방, 띠실 등 식사, 단란 공간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처음 전기밥솥이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부의 상징으로 안방에 배치한 원인이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식사공간과 가까이 배치하여 식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의 조선족 농촌주택에서 요리는 반드시 부엌에서 진행되며, 밥은 안방, 또는 정지방에서 전기밥솥으로 취사하였다. 가전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부엌에서 일부 취사 행위들이 분리되어 기타 공간으로 이행되고 취사공간이 확장,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용도의 변경

과거 조선족 주택에서 부엌이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최근에 와서 내륙지역에 건축된 일부 조선족 농촌주거에서는 화장실, 욕실, 보일러실 등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한 부속공간들이 설치되면서 부엌의 기능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농촌주거의 부엌공간의 형태와 취사 및 식사방식에 주목하여 17개 마을의 48개 대표적인 조사사례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는데 그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엌을 정지통합형, 통로형, 독립형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리적으로 한반도 가까운 지역은 정지통합형의 부엌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내륙지역은 통로형과 독립형의 부엌 형태를 위주로 나타났다.

둘째, 부엌의 공간구성형태에 관한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취사도구, 급배수, 연료, 저장 공간 및 가구, 식사장소 및 방식, 부엌의 기타 기능 등 범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취사도구의 사용현황을 분석해보면 각 지역은 전통 솥을 기본 취사도구로 사용하는 한편 두만강, 압록강지역은 기타 지역보다 평가마의 사용율이 높고, 요녕성, 길림성 내륙지역은 한족 솥의 비율이 높으며, 중·러 국경지역과 흑룡강지역은 전기밥솥의 사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2) 급수방식에서 전기모터펌프와 수도물의 사용율이 기타 방식보다 높았다. 그 중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길림성 내륙지역은 수도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중-러 국경지역과 요녕성 내륙지역은 전기모터 펌프의 사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수방식에서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은 물통을 사용하는 재래식 배수방식의 비율이 높고, 내륙지역은 배수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3) 취사연료는 주로 장작, 볏짚과 가스연료를 사용하고, 난방 연료는 장작, 볏짚과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4) 저장 공간 및 가구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찬장을 주요 저장가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두만강 압록강 유역은 선반 등 전통가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내륙지역은 냉장고와 조리식 찬장의 사용율이 비교적 높았다. 또한 가구의 배치에 있어서 부엌보다 부엌 주변의 식사공간에 배치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났다.

곡물, 야채의 저장은 주로 실내 창고와 바깥 움을 많이 사용하며 실내 움을 사용하는 사례는 흑룡강성의 내륙지역과 중-러 국경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5) 조선족 농촌주택에서 식생활은 대부분 좌식을 유지하고 있고 식사 장소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두만강, 압록강 지역은 주로 정지방을 사용하고, 내륙지역은 안방 외에 띠방 또는 부엌공간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6) 부엌의 기타 기능으로서 세면, 세탁, 목욕 등 행위들이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셋째, 취사 및 식사방식의 변화는 연료, 취사도구의 변화에서 일어나며 주생활양식의 변화는 주공간의 변화를 일으킨다. 전기밥솥, 냉장고 등 새로운 도구의 도입과 함께 취사공간이 식사장소 주변으로 확장되었고, 여름철의 취사장소가 실외 부엌에서 실내 공간으로 옮겨갔다. 또한 부엌의 기능형태에서 주변에 화장실 등 물 쓰는 공간이

따로 생기면서 부엌의 다용도기능이 점차 소실되었다.

조선족 농촌주거에서 부엌공간은 이주역사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근대화과정에서 주거용 연료와 취사도구의 변화는 각 지역의 조선족 농촌주거의 취사방식 및 식사방식의 변화와 이에 대응되는 행위공간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고도임·최형선·박경난(1998),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농가의 변용에 관한 연구-개조와 증축을 중심으로-, 생활과학 연구논집, 18(1), 45-69.
2. 국립민속박물관(1996),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3. 국립민속박물관(1997),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4. 국립민속박물관(1998),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5. 김준봉(2000), 중국 동북지역 한인동포(조선족) 전통민가 평면의 분류와 특성, 충북대학교 박사논문.
6. 박경휘(1994),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풍습, 잡문당.
7. 심혜숙(1994), 중국조선족의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
8. 울산대학교 건축연구소(1994),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장재춘, 울산대학교 출판부.
9. 양승정(1997), 중국 조선족 농촌주거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길림성 용흥촌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0. 주성화(2007), 중국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주).
11. 李恩郷(2006), 異文化との接觸における食の變容, 國際開發研究フォーラム(31), 139-159.
12. 矢崎高儀(1944), 滿洲の住宅とその生活, 國民會報社大連出版部.
13. 三橋俊雄, 張青蘭, 趙岩(2003), 中國朝鮮族における台所道具文化の變容, デザイン學研究, 研究發表大會概要集,(50), 218-219.

접수일(2009. 9. 25)
 수정일(1차: 12. 4)
 게재확정일자(12. 30)